

신성전자정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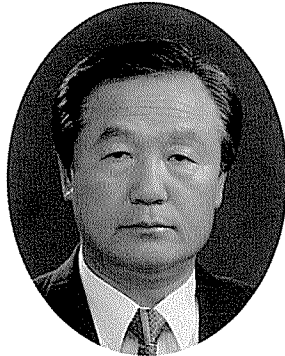
-정밀전자 부품의 선두기업으로 도약-

신성전자정밀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정웅)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4,000여평의 부지에 본사, 공장이 있으며 구미시 고아농공단지에는 구미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DIE CASTING 및 초 정밀 절삭가공 전문업체이다.

신성전자정밀은 1978년 유일전자로 출발하여 1985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제품만을 생산해 오고 있다.

박정웅 사장은 일찌기 삼성전자와 VTR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핵심부품인 DRUM SHAFT ASS'Y를 국산화 공급함으로써 VTR의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90년도에는 상공부 고시품목(90~23호)에 의한 HDD용 부품(Base, Cover, Arm)을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하여 삼성전자의 HDD(HDD Disk Drive)신규개발이 조기에 안정되게 하여 현재 연간 1,000만대 규모를 생산하는 HDD사업부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현재 신성전자정밀이 생산하고 있는 공조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



- 대표 : 박정웅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136-1
- TEL : 0339-376-4081
- FAX : 0339-376-7556
- 생산품목
HDD기구물 부품, VTR드럼부품, 자동차부품

또한 국산화 대체품목으로 연간 200억원의 매출 달성은 물론이고 이중 \$800만은 수출 실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며 가동율 90%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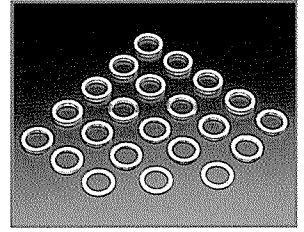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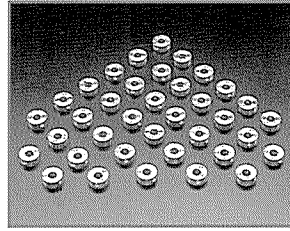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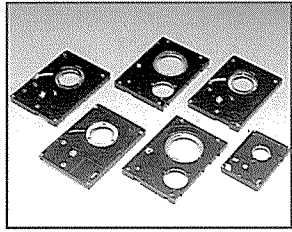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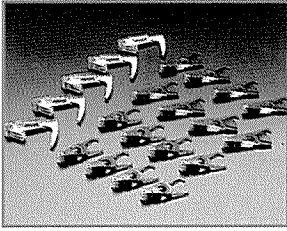
신성전자정밀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온데는 경영자의 투철한 장인정신과 근면, 검소한 생활신조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종업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솔선수범한 자세와 남다른 혁신활동을 일찌 감치 도입 진행해온데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9년 박정웅 사장은 국산화 제품이 수입품과의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 국산화의 의미가 없다는 각오 아래 생산성, 원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공장 체질혁신운동"을 선언하고 양보다는 품질을, 원가보전을 위한 자동화, 의식 개혁을 위한 공장 Clean 운동을 전개한 결과 '95년도에 생산품목 36품목중 27품목이 100PPM수준에 도달하고, 자동화율이 80%수준에 도달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자동화 시범공장으로 지정되어 관련업체, 유관기관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부여 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선활동의 결과로 '95년 ISO 9002의 인증과 더불어 제24호 100 PPM의 인증을 획득하고 100 PPM부문의 대통령상 수상과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하기에 이르렀다.

안정된 품질 System과 초정밀 가공기술 축적의 바탕위에서 신제품개발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회사의 업종 다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96년 Compressor용 Vane, '97년 자동차용 정밀가공품 개발이 바로 그것으로 Vane은 '98년 5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현재 가동을 100%로 앞으로 자동차용의 Vane과 중, 대형 자동차 부품의 Die Casting 및 가공품의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양산중인 HDD부품은 IMF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기술과 외국의 노동력을 조합한 합작사 추진을 통하여 짧은 Life Cycle, 고용량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발경쟁력을 갖추고 '99년에는 세계적인 HDD부품 Maker로 발돋움 할 것이다.

이와같이 IMF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원의 구조조정이나 감량경영 없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기술을 전제로 한 국산화개발, 자동화, 공정개선 등의 끊임없는 경쟁력제고 노력의 결과 이기도하다.

이제는 고객만족의 시대이다. 내 부적으로는 “후 공정은 나의 고객이다”라는 앞공정 완벽품질 운동을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고객의 정보 수집과 System에 의한 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신속하게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질은 곧 신성전자정밀 이라는 사고로 고객

에게 자리매김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IMF경제라고 해서 움츠려들거나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가 세계시장의 벽이 무엇 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처 자세와 기술 그리고 품질의 경쟁력만 있다면 세계시장은 얼마든지 개척 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신성전자정밀은 한걸음 한걸음씩 21세기를 준비하고 앞선 기술의 개발과 자동화의 영역을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정밀전자부품의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